

#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 및 노선개편 시민설명회

### 나주시민회관에서 운수회사 보조금 관련 쟁점 사항 Q&A

### 시내버스-마을버스-마을택시 노선·급행버스 도입 등 설명

나주시는 전남 대중교통(운수회사)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 해소를 위한 대시민 설명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나주시는 설명회를 통해 운수회사(나주교통) 보조금 과다 지출에 대한 전남도 주민감사청구, 시민사회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 행정조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특히 대중교통 관련 주요 쟁점들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친숙한 답변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개편 추진 방향, 효과 등을 영상과 PPT 발표를 통해 공유했다.

26일 오후 4시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설명회는 각계각층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발표(자)는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체계'(운송원가 용역사), '대중교통 보조금 개선 사항 및 팩트체크'(나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노선 개편 사항'(노선 개편 용역사),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첫 발표는 지선·간선버스 지원방식, 표준운송원가 정의, 방식, 지원 항목, 산정·정산 등 대

중교통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뤄졌다.

이어 나주시 교통행정과장이 나주교통 회계감사용역(2019~2020)에 따른 6억6800만원 회수 조치,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결과 전체 10건 조치 완료, 시민사회 고발(4건, 불송치 혐의 없음)에 대한 조치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지침 마련', '표준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사업 별도 사업 관리 및 원가 제외', '입원 인건비 6명 중 3명 지원', '보조금 정산 관련 과업 강화', '간선 현금 수입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대중교통 보조금 등 팩트체크Q&A를 통해 임원 및 승무사원 인건비 책정, 나주교통 현금 수입 관리,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 등의 문 사항을 20여 항목으로 정리해 답변했다.

나주시는 현 대중교통 현황 문제점으로 '대중교통 노선의 높은 중복도 및 많은 가지노선', '일정하지 않은 배차 간격', '대중교통 보조금 증가'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노선 개편 계획으로 '시내버스-마



을버스/마을택시를 연결하는 노선 체계 구축', '혁신도시-나주역-원도심 구간 운행 급행버스 도입', '100원 택시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빛가람동 시범 운영', '1개면 마을택시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노선 감축(223개->46개), 운행 대수 감소(132대->120대), 연간 대중교통 보조금 45억 원 절감 등 노선 개편 결과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나주시는 이번 대시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7

월부터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통해 지역별 대중교통 수요, 각계각층 시민의 목소리를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설명회가 대중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논란, 의혹을 사실에 기반해 시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혁신적인 대중교통 노선개편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조금은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 화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간담회...17명 참여

화순군은 지난 26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과 도·농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체험·휴양마을 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과 체험·휴양마을의 다양성을 통해 농촌에는 소득 증대를, 도시에민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체험·휴양마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화순군수의 제안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간담회에는 14개 체험·휴양마을에서 17명의 위원장 또는 사무장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각 마을의 향후 계획과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화순군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복규 군수는 "어떤 시설을 갖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이 현재의 운영 방식에 얽매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영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군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약속했다.

참석한 농촌 체험·휴양마을 운영자들 또한 "격식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앞으로 간담회가 정례화되어 체험·휴양마을 운영의 새로운 활로가 열리기를 희망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7월 1일부터 운행 시작

담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을 시작한다.

바우처 택시는 전남광역시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이용 가능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시내버스 요금(기본요금 2km 500원, 1km 추가 시 100원) 정도만 부담하면 관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전남광역시 이동지원센터(☎061-287-8341.5~7)로 문의해 보행상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등록자나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 희망자는 전남광역시 이동지원센터 전화(☎1899-1110)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와의 배차 분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곡성군, 어린이 먹거리 개발 컨설팅 추진

### 강레오 셰프 컨설턴트로 참여... 어린이 동반 관광객들에 먹거리 제공



곡성군이 지난 26일 '어린이 먹거리 개발 컨설팅'을 진행했다.

곡성 어린이 먹거리 개발 컨설팅은 흑돼지, 멜론, 토란 등 곡성의 특산품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영양이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를 동반한 관광객들에게 곡성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한 지역 내 업체들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는 강레오 셰프가 컨설

턴트로 참여해 곡성군의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강레오 셰프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곡성 '개비정식' 개발에도 참여한 바 있다.

어린이 먹거리 컨설팅이 완료되면 오는 10월 6일부터 9일간 개최될 제23회 곡성 심정어린이대축제 기간 동안 시범 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어린이 먹거리는 오는 10월경 곡성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gokseong.go.kr/tour>), 곡성군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를 통하여 관련 이벤트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곡성만의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 먹거리를 개발해 곡성군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곡성만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 구례군, 수해 피해 3년 만에 취·정수장 복구

### 2020년 8월 폭우로 침수 피해, 구례 취수장·섬진강정수장 준공

3년 전 폭우 피해로 침수됐던 구례취수장과 섬진강 정수장이 다시 가동된다.

구례군은 2020년 8월 7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본 '구례취수장 및 섬진강 정수장'의 재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구례취수장과 섬진강 정수장의 침수 피해로 산동면 일대를 제외한 구례군 전 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중단된 바 있다. 주민

들은 먹고 씻을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해복구 예산 확보 등 타개책 마련에 나섰다.

침수시설물에 대한 항구복구를 위해 추진된 재해복구사업은 국비 53억 원, 지방비 18억 원 등 복구비 총 71억 원이 투입됐다.

군은 2020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21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